조선왕조실록의 보존 현황 및 방안

김 호 균 | 국가기록원 공업연구사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의 재임시 일어난 정치 · 외교 · 경제 · 군사 · 법률 · 사상 · 생활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 · 편찬한 조선왕조의 공식 국가기록이다. 태조부터 제25대 철종에 이르는 472년(1392년~1863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로 기술하고 있는데, 태조가 태종 8년(1408년)에 죽자, 이듬해 태종이 태조실록의 편찬을 명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완질의 분량은 태백산사고본이 848책 1,707권이고, 정족산사고본은 1,187책 1,707권에 달한다.

조선왕조실록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151호)이면서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인류 전체의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의 조선왕조실록 보존 · 관리

조선왕조실록을 1913년까지 보관해 온 조선시대 사고는 지면으로부터의 습기 영향을 피할 수 있고, 서고 내 공기순환이 외기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층 목조 건물로서 설계되어져 실록을 보관하였다.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서는 과거의 보존방식을 현대화시켜 견학공간과 보존공간을 분리하는 조습판넬을 설치하고 오동나무상자에 보관하는 방법과 같은 전문화된 시설과 이중보안 서고출입 시스템 구비 같은 완벽한 보존 ·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선왕조실록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보존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항온 · 항습 시스템, 자외선 차단등 설치와 같은 최적의 보존환경을 갖추고 서고내에 천연항균제를 비치하여 생물학적인 훼손도 방지하고 있다. 또한 특수보존시설, 첨단 보안장치, 청정 소방시설 등 엄격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최적의 전문보존서고에서 안전하게 보존 · 관리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은 국난과 일제강점기를 거친 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었다가 1984년 후방소산에 대비한 전문보존서고인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당시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이 완공된 후 1985년 이송되어 현재 22년이 지났으나 이관 당시의 보존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역사기록관의 보존 서고 시설 모습

조선왕조실록의 보존상태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서 보존 · 관리중인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은 전체 책수 848책, 1,706권(문종실록 11권은 정족산사고본과 태백산사고본 어디에도 없다)이며, 16,004장 136,008 면이고 규격은 크기가 비교적 고르다. 명종실록까지는 복인(復印)되었기 때문에 규격이 같고, 그 후로는 제작 시기가 제각각 다르므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지는 감색 또는 황색의 지제표지(紙製表紙)이며, 태조~명종 시기 259책은 감지 표지이고, 광해군 이후 589책은 황지 표지이다. 감지 표지에는 모두 능화문(菱花紋)이 새겨져 있으나 광해군일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황지 표지에는 연화문, 연보상화문, 국화문, 만자문 등도 발견된다. 능화문은 마름모가 이어져 있는 무늬로, 고구려 시대의 와당(瓦當)에 많이 나타나며, 연화문은 연꽃을 본뜬 장식무늬이다.

그리고 태백산사고본은 모두 5침(五針)제본으로 5개의 구멍은



갈색, 홍색, 백색, 보라색과 담홍색의 다섯가지색의 끈(철사)으로 제본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05년과 '07년 두차례에 걸쳐 전문가에 의해서 실록을 한장씩 넘겨가며 보존상태 검수작업을 수행한 결과, 4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보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조상의 우수한 제지기술과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의 완벽한 보존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의 손상현황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미세한 손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표지의 경우 전체적으로 양호하지만 태조, 인종실록이 상대적으로 다른 실록에 비해 훼손도가 높다.

내지의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손상이 발견되는데 전 왕대에 걸쳐서 수침흔적이 발견되고 있으며, 세종실록에선 수흔의 비중이 높고 선조, 영조실록에서 상대적으로 수침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자들에 의한 표식이 여러 실록에서 발견되었는데 띠지의 흔적이나 연필 외 필기류에 의한 표기 흔적이 희미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부 실록에선 한지가 얇아지면서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발견되었고, 제본시에 사용된 철사로 인한 미세한 색 번짐이나 이물질에 의한 변색이 간혹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 미세한 곰팡이 흔적이 몇몇 실록에서 발견되고 있어 생물학적인 훼손에도 관심이 요구되며, 실록은 재질이 한지이기 때문에 산성화와 같은 화학적인 훼손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의 보존방안

검수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서 보존중인 조선왕조실록 태백산 사고본의 보존상태는 전체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이러한 현재의 보존상태를 후대에 길이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은 최적의 보존환경을 조성하여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있다.

앞으로 보존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 발전시키고 고문서, 교지와 같은 한지기록물에 대한 보존수명 연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여, 화학 · 물리 · 생물학적인 분야에서 과학적인 보존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기록원 내 전문연구실을 신설하여 과학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존 · 분석 전문장비를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은 조선왕조실록을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 · 연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문서 복원기술의 장려 및 보급을 통하여 훼손된 기록물에 대한 전문복원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 ·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필자 약력**_ 경상대에서 유기화학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역사기록관에서 조선왕조실록 보존관리 및 기록물 복원을 담당하고 있다.